

테마칼럼

예술로의 초대

이대형 특필

김고영에 관해

경제로 세상보기

번역되지 않는 것들-공감의 조건



이승우

진정한 이해는 말에 담겨 전달되는 작가의 개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는 번역된 문장 안에서 번역될 필요가 없거나 번역되지 않은 기억, 혹은 세계관에 의지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그 작가와 소통하는 것이다.

언어와 소통에 대해 생각하면 떠오르는 재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을 때 일이다. 출고 허가되고 지쳐 쓰러진 병사들을 향해 나폴레옹이 외쳤다. "돌격 앞으로!"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난센스 문제이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 춥고 배고프고 지쳐서 움직일 힘이 없었을 거라는 식의 진지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라는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답이다. 모든 난센스 문제의 답이 그렇듯 이 대답 역시 단순하고 어이없지만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소통을 위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한다. 통역이나 번역의 필요를 강조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예화이기도 하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통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은가.

문학 작품은 근본적으로 언어에 의존하는 장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독자를 만나는데 한계가 있다. 번역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학이 미술이나 음악에 비해 말이 느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문화의 세계의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우리 문학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외국에서 우리 문학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번역 작업이 그만큼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진다. 실제로 몇 해 전에 파리의 한 대형 서점에서 나는 우리 작가들의

책이 책장 한 칸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채 여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책과 함께 꽂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장면은 여러 칸의 책장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소설과 비교되어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우리나라 모든 작가들의 책을 합한 것보다 일본의 한 작가의 책이 더 많았다. 몇 해 지난 지금이라고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된 책들은 외국의 독자들에게 잘 이해되고 제대로 소통되는 것일까?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번역을 통해 말이 같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되고 소통된다는 법은 없다. 물론 번역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해와 소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 보면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때때로 한국어로 작품을 쓰는 어떤 작가보다 다른 언어로 작품을 쓰는 유럽의 어떤 작가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 작품, 혹은 그 작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 작가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그렇다. 한국의 어떤 작가, 혹은 그가 쓴 작품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 작가의 언어를 아주 잘 이해하는데도 그렇다.

'이해'를 위한 통로는 언어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 역시 언어만

은 아닌 것 같다. 이를테면 비슷한 경험이나 기억, 종교, 가치관과 세계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유전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경험이 비슷하거나 기억이 같거나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세계관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유전자가 같다면, 그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에 대해 말하는 소설을 금방 받아들인다. 선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구도 소설에 대한 공감이 빠르다.

물론 번역을 전제해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서야 경험과 기억, 세계관의 공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참된 이해와 공감은 번역된 문장에서 읽어낸, 굳이 번역될 필요가 없는 기억이나 경험, 세계관 같은 요소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번역할 필요가 없는 공감의 요소이다.

번역은 말을 이해하게 해 준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는 말에 담겨 전달되는 작가의 개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개성을 이루는 기억이나 세계관은 번역될 필요가 없거나 번역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번역된 문장 안에서 번역될 필요가 없거나 번역되지 않은 기억, 혹은 세계관에 의지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그 작가와 소통하는 것이다.

<소설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김선명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연례 행사로 서원정진 50일 기도를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 신심 장한 75세의 할머니 교도 한 분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살며시 와서 귀뜸말로 '교무님 제가 집안 조카 결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와야 해서 이틀 정도 기도 못 나오겠네요. 죄송해요.'라고 하기에 잘 다녀오시라며 보내드렸다.

그런데 다음날 그 교도님이 간밤에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만들어 주간에 노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말뚝도 해드리고 점심공양도 함께한다.

어제는 민들레 사랑방에 오는 할머니 몇 분을 모시고 문병을 다녀왔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그중 가장 젊은 분이이다. 언니들이 입원한 동생에게 위로와 패유를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는데, 올해 90인 딸인니가 '동생이 없으니 사랑방이 어찌 너무 조용해! 얼얼 와야 쓰러졌어!'라고 했더니 '그러게요. 나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뇌경색으로 새벽에 영광병원을 거쳐 광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그분의 패유를 위해 잠깐 마음을 모아 심고를 올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보니 다행히 말도 많이 어눌하지 않고 오른쪽 마비 증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천만다행이었다.

시골살이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가 않다. 젊어서 자식 낳아 키우고 농사짓는 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의 흔적은 굵은 허리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삭신으로 남았다.

농사철이면 논밭에 나가 살고 수확이 끝나 쉬는 겨울이면 하루걸러 병원 신세를 지는 약순환이 이어진다. 그래서 늘 보이던 분이 안 보이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어 전화기로 확인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생업 때문에 대처에 나가 사는 자녀를 대신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옛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민들레 사랑방'을

열린 가고잡오요!, 언니들 고맙소잉. 어찌거나 건강들 조심하시소!' 한다. 그렇게 인사를 뒤로하고 영광에 도착하여 국밥집에 들러 막걸리 반주를 곁들여 점심공양을 마치고 할머니들을 모셔드렸다. 동생 병문안에 좋은 구경에 맛난 밥까지 먹었다고 고마워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기축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라는 다짐을 한다. 비단 죽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리라. 소태산은 '생사(生死)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판(早晚)이 따로 없지마는 나이가 사십이 넘으면 죽어 가는 보따리를 챙기기를 시작하여야 죽어 갈 때에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다. 오늘 잡자리에 들어 내일 깨어나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여한이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해 본다.

그나저나 어제 먼길을 다녀오고 반주(飯酒)까지 한 할머니들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영산교당 교무>

초·중·고 학교건물 안전유리로 전면 교체 해야

얼마 전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찬 공이 유리창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튀어 손등에 부상을 입었다. 만약 파편이 눈에 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니 너무나 아찔했다.

자동차나 건축용 접합 유리는 그것이 깨져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전부다 안전 유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안전유리는 깨지는 순간 작은 동전 크기

정도로 작게 부서져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예산이 좀 들리는 하겠지만 초·중·고 학교 건물의 유리는 모두 안전유리로 교체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교체할 수 없는 학교는 유리문에 건축용 안전필름을 붙이면 파편이 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조치라도 취해주기 바란다. ▲이인자·광주시 남구 백운2동

기고



안문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영산강을 필두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의 사전 포석이라는 정치적 주장에서부터 경제성 문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 식수 안전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혹자는 대규모 식수난을 염려하기도 한다.

수질과 먹는 물에 대한 우려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해 하상 준설과 보(壩)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유속이 떨어져 부영양화와 조류번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오염의 원인 물질인 총인(Total Phosphorus)의 방류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인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먹는 물과 4대강 살리기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으로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지역간 갈등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크게 물 걱정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현재 식수여건을 살펴보면 그다지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 낙동강 지역은 강변을 중심으로 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물의 오염이 심각하다. 지난 '91년의 폐물사건 이후로도 수차례 상수원수 오염사고를 겪은 터라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 느끼는 민감도는 어느 지역보다 높다. 또한, 영산강 지역은 물이 부족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고, 수질도 4~5급수로 가장 나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먹는 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하천의 보(壩) 설치로 인한 상수원수 수질악화와 준설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 및 유류 등 유해물질의 유출로 정수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민주 '영산강 살리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예산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영산강 사업은 민주당이 4대강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대운하와 무관할 뿐 아니라 현 정부 훨씬 이전부터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대강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지역민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물론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는 분명히 일리(一理)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충분한 사업 타당성마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국 환경 및 생태계 훼손에 따른 재앙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와의 관련성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는 수권이 가는 측면도 있다.

영호남 힘모아 '기후변화 총회' 여수 유치

2012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영·호남시민단체가 여수 유치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은 동서 화합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남동부권 9개 단체와 경남서부권 3개 단체 등 영호남 지역 12개 시민사회 단체는 최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여수에서 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유치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를 위해 '2012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유치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기구로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가별 기준을 만들어가는 국제회의이다. 오는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최적지는 단연 여수다. 무엇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핵심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공동 대

하지만, 영산강 사업의 성격은 3대강과는 분명히 다르다. 우선 영산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 또한 영산강의 수질은 2급수 수준인 3대강과는 달리 4~5급수로 지금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영산강은 홍수 위험이 가장 높고 물부족도 오는 2011년 8월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당장 등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희생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영산강 관련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코 지역이 주의가 아니다. 그동안 국가재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가장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산강 사업은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4대강 반대에서 벗어나 영산강과 3대강을 분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와 당사국총회 개최 목적이 일치하는 것이다.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환경 보호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비전 추진현황을 결산하는 시점이며 국제적으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돼 포스트-2012 기후협력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리우선언이나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새로운 여수선언이 발표될 경우 여수시는 기후관련 국제모범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2012당사국총회는 192개 국가의 공식대표단, NGO, 국제기구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하는 매머드 국제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수는 숙박시설 부족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지역이 대회 유치를 힘써 준다면 낙후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동서 화합의 성과도 기대된다.

無等鼓

"인터넷 중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TV는 '바보 상자'나 '가족 간 대화 단절 야기'로 비판받았지만, 한 세대 이상 걸려 수용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고작 10년 남짓한 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돼 순기능적 수용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대중문화 학자들이 인터넷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TV와 비교해 자주 하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정신 없이 팍팍 돌아가는 디지털세상을 보면 이런 비교가 무의미하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터넷이 TV이니 하는 구분이 모호해졌다. 인터넷이 TV가 되고 TV가 인터넷이 되는 세상

받아 보고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 이런 현상들만 보면 TV는 '바보상자'의 오명을 벗고 이전 '똑똑 상자'로 화려한 부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라. 보는 사람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빠지게 해 말도 잘 안 하고 멍하니 화면만 보게 했던 바보상자가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이전 인터넷의 날개를 달아 인간을 더욱 바

보로 만들어놓는 무서운 문명의 이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영국의 발명가 존 로지 베어드(John Logie Baird)가 TV를 발명한 지 84돌 되는 날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비판받아왔던 '바보상자'의



오명은 오늘날에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씀은 아직 유효하다. "TV와 많은 시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취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TV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된 바보가 된다." /김일환 여론체무장 kih8@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